

# 민주 '안방 전패' 주류-비주류 책임 공방

### 정세균 대표 "패배 경위서 제출하라"

### "지도부 기득권 연연... 민심 등 돌려"

### 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영향줄 듯

지난 4·29 재보선에서 드러난 '호남 민심'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적 기반이자 '안방'이지만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호남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전패했기 때문이다.

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불복해 탈당한 무소속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신 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마한 전주 덕진과 완산갑 2곳에서 졌고, 장흥군 광역의원과 광주 서구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여수시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또 다시 민노당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정당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뒤집어지는 공천 갈등과 일방통행이 호남 민심의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호남 민심의 선택은 민주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치러질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등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남 민심의 선택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비주류 측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 지도부가 기득권에 연연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공천에서 배제, 내부 분란을 일으킨 것이 호남 민심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전정배 의원은 지난 2일 목포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여당의 참패나 민주당의 호남 전패"라며 "호남민심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반해 당내 주류 측에서는 호남 참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이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외면했기 보다는 지방선거의 특성 및 공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주류 측 핵심 인사는 "전주에서는 공천 배제 등에 따른 동정론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전남의 광역의원 선거와 광주의 기초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의 특성에 따라 당보다 인물론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이를 두고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외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 지시로 호남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고 광주와 전남 재보선 지역 선거 사무실에 경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내심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번 재보선 선거 결과는 지역 현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당 지도부와 정치적 무기력에서 비롯되지 못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지역 재보선 패배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야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J-프로젝트, 광역경제권 설정 등 표류하고 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논평조차도 내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의 승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호남지역의 민심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 전 장관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면서 내부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가 여객에 놓여 있다.

신 건 전 국정원장의 동반 당선으로 '덧발'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6년만에 원내 진입한 정 전 장관은 우선 복당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곧바로 복당 신청에 나서기 보다는 이달 중순까지는 상경하지 않고 전주에 계속 머무는 것으로 알려 져 정세균 대표 등 당내 주류세력과 '제 2라운드'를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즉, 당내 우호그룹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을 전개하면서 당 밖에서 비주류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복당 전 공회 회차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정 전 장관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면서 내부



민주당 정세균(사진 왼쪽) 대표와 무소속 정동영(가운데) 당선자, 손학규(오른쪽) 전 대표 등 민주 진영의 '빅3'가 4·29 재보선 이후 새 진로를 모색하며 웃고기기에 들어갔다.

## 민주 진영 '빅3' 재보선 후 '마이웨이'

### 정세균 수도권 승리로 당내 전열 정비 박차

### 정동영 6년만에 원내진입... 복당신청 늦출 듯

### 손학규 정계복귀 발판 마련뒤 야인으로 유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무소속 정동영 당선자, 손학규 전 대표 등 이른바 민주진영의 '빅3'가 4·29 재보선 이후 일단 새로운 진로 모색에 나서게 되었다.

우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공천배제로 배수진을 치던 정 대표는 수도권 승리로 한 숨 돌리는 모습이 되었다.

이번 재보선으로 당내 입지를 보다 탄탄하게 다지며 대권주자 변모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 대표는 기세를 몰아 '뉴민주당 플랜'의 가치를 내걸고 당내 전열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달 중 전국 순회 투어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정 전 장관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면서 내부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가 여객에 놓여 있다.

신 건 전 국정원장의 동반 당선으로 '덧발'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6년만에 원내 진입한 정 전 장관은 우선 복당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곧바로 복당 신청에 나서기 보다는 이달 중순까지는 상경하지 않고 전주에 계속 머무는 것으로 알려 져 정세균 대표 등 당내 주류세력과 '제 2라운드'를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즉, 당내 우호그룹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을 전개하면서 당 밖에서 비주류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복당 전 공회 회차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정 전 장관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면서 내부

복당 당위론간 정면 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 내부의 계파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반(反)MB 전선 동력 확대와 뒷발 민심 끌어안기 차원에서 극적으로 정 전 장관의 복당을 허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주류 측의 강경기류 등을 감안할 때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수도권 지원유세로 꺾였을 때 정 전 대표는 다시 '야인'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따라 손 전 대표는 당의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당 안팎에선 이들 3인의 경쟁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당권투쟁을 앞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김형오 의장 등 6일 5·18묘지 참배

○김형오 <사진> 국회 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국회 사무처 간부 일행이 6일 광주를 찾는다.



### 민주 '신성장 동력' 토론회

○민주당 의원들이 6~7일 광주를 찾아 광주시와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3일 김재균 의원(광주 북)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0명은 6일 오후 3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신성장 동력, 태양광·수소연료 전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에는 지식경제부 소속 김 의원과 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국토해양위), 김희철(행정안전위), 이춘석(법제사법위), 이종걸·장세환·최순순(이상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규백(국방위), 문학진(통일외교통상위) 등이 참석한다.

이날 광주 방문에는 김 의장과 문희상·이윤성 부의장, 박계동 사무총장, 유종필 도서관장, 신혜룡 예산정책처장 등 15명이 함께 한다.

이들은 정책토론회에 이어 광주시와 '시정 현안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한 '쇄신 회오리'... 새판 짜나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안경을 사무총장의 사의에 따른 당직 개편으로 쇄신의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최고위원들을 제외한 정무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의도연 구소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

한 후 당의 쇄신과 단합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의 쇄신은 조직과 인물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역학구도 자체를 바꿔놓을 정도의 큰 폭의 변화를 의미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당 관계자들은 향후 당직 개편이 오는 21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과 맞물려 단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출과 함께 다른 당

### 안경을 총장 사의... 21일 당직 개편

### 대변인 등 대부분 교체 가능성

대변인 등 주요 당직 대부분이 교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 당 쇄신특위 활동, '민본21'을 비롯한 의원들의 쇄신 요구 등을 감안할 때 변화의 폭은 단순한 당직 개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지리멸렬한 모습에서 벗어나 당의 역할과 기능, 리더십의 형태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

표현과 함께 다른 당직자들의 인선을 발표함으로써 당직 개

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역할 분담을 모색, 당내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 직할체제는 친이 계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대표 직할체를 친박계로 나누는 것도 예상 가능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환영합니다! 친구야**  
 홈페이지 www.insg13.kr  
 • 일 시: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 참석대상: 광주 인성고 13회 동창생  
 • 장 소: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및 20주년 은사님 광주 인성고 흥동문화영원 이사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강천규 TEL: 011-614-0898 최성훈 TEL: 011-611-0442 송상훈 TEL: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림**  
 홈페이지 www.inscong.or.kr  
 • 일 시: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 장 소: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장: 박형욱  
 • 1부행사: 축구, 배구, 농구, 등산(리거, 400m계단)  
 • 2부행사: 순환가도공예, 각기도 탐기타, 레크리에이션  
 • 특별행사: 가족대항개강, 행운권추첨, 어린이미술전시대회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사무실 연락처 062)603-3833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경섭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합격시스템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 찰 오만	수사 차주운
6개월과정 • 2개월 원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15% D/C	1년 과정 • 2개월 원성 6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인턴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 신강경 22년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 메가 경찰학원 전임	• 김우준 22년 • 광주 순천 미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학원 전임
주저하지 말고 1년 수강료 98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영어 이강희 • 경찰 영어 70% 합격률 • 짝꿍 짝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행법 허문표 • FIRST 최강 형법 지킴 • 노란진 전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 새이 1차 3회 합격 • 신동민 2008 경찰수험생 10명 합격 • 형사합격률 100% 특강

**경 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 이뤄집니다! =

**7.9級 공무원** **수직렬**

30 40 주부반모집합회 행정서관감법점마철교보보간복소기 8395 5년간 소방인력 총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인원	시험일	시험과목
인원: 1명 (국립직 9명, 2320명, 7급 600여명 공채)	5월 11일 (주야 3교반 도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철학, 민사법, 형법, 경제학, 교양학, 복지학, 소방학, 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 23일, 7급 9월 26일 시행	5월 17일 (현재상담인수중)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www.mdgosi.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최고의 자격증!**

**국비환급 100%**

시험일정: 2009년 8월 9일

특 징: ▶ 농산물의 등급판정 ▶ 중앙회, 지역농협 공채시 가산점 5점 ▶ 공무원, 농림관련 직종 응시자 가산점 5점 ▶ 관련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채용업체에 지급지원

**개강 5월 9일(토)**

**광주 박문각 행정고시 학원** ☎ 062)529-8839

■ 위치: 유암동 광안고가 옆 삼대신원 2층